



APEC/PECC KOREA NEWSLETTER



한국APEC연구컨소시엄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3460-1031 FAX : 3460-1133
APEC 문의 : kslim@kiep.go.kr | KOPEC 문의 : kopec@kiep.go.kr

■ 발행인 : 蔡旭 ■ 편집인 : 金尙謙

Vol. 13, No. 4, 2010년 12월

2010 APEC 정상선언 주요 내용

▶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2010년 평가대상국에 대한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최종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경제기술협력 증진과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에 대한 작업을 가속화할 것을 결의

▶ FTAAP을 향한 가능진로 모색

차세대무역투자이슈를 포함하고, ASEAN+3, ASEAN+6, TPP 등을 추진하여 보다 포괄적인 아·태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방안 지속개발 및 추진

▶ 성장전략

경제성장을 위해 다섯 가지 요소에 입각한 전략수립과 이의 실행계획 정립. 회원국별 우선과제에 따라 주요과제 조정

18th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제18차 APEC 정상회의 주요논의 결과 (2010. 11. 13~14, 일본 요코하마)

2010년 APEC 정상회의가 11월 13~14일 양일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2010년 APEC 정상회의에서는 “변화와 행동(Change and Actio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고르 그 이상(Bogor and Beyond)”의 요코하마 비전을 제시하였다. APEC의 주요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보고르 목표를 위한 개별 및 공동노력을 되짚어보면서, APEC 지역의 자유무역투자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다시 다졌다. 점점 통합되고 상호의존적으로 변모하는 역동하는 지역으로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와 기회를 규명하여 행동지향적 조치를 단행하고 G20 프레임워크와 맥을 같이하는 보다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보장하는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할 것을 다짐하였다. 향후 보다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투자과 공급망 개선, 융이한 기업활동과 같은 경제적으로 통합된 공동체로서 보다 균형 잡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안전한 성장을 도모할 것을 제창하였다.



▶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1994년 보고르선언 이후, 모든 APEC 회원국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상품무역은 연 7.1% 성장을 기록하여 2009년에 11.4조 달러에 이르렀으며, 상업서비스 명목가치 역시 연 7% 성장을 기록하며 2.4조 달러에 달하였다. APEC 지역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연 13% 성장하였고, 해외투자는 연 12.7% 성장하였다. WTO 우루과이라운드 결의보다 더 앞서는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평균실행관세율을 1996년 8.2%에서 2008년 5.4%로 감소시켜 세계평균인 10.4%보다 낮은 관세율을 보였다. 2010년 보고르 목표 평가대상국들의 2008년 수입의 절반은 무관세였다. 보고르선언 이후 서비스무역은 지역 및 세계

무역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국내정책개혁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방과 같은 진보를 이루었다. 또한 2010년 보고르 목표 평가대상국들의 RTAs/FTAs와 양자투자협정 건수는 1996년 160개에서 2009년 340개로 늘어나 투자자유화를 이끄는 주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을 통해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무역거래비용을 5%까지 감소시키면서 무역투자장벽을 줄이기 위한 결연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야별로 관세감축 노력이 상이하며, 서비스분야는 여전히 규제가 많고 개선할 여지를 많이 갖고 있음에 따라 무역투자원활화를 위한 비관세조치와 “국경 내(behind-the-border)조치”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르 목표 증진을 위해 경제기술협력(ECOTECH)분야 진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회원국 간 기술격차를 줄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제도적인 인력자원 역량을 개발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혁신으로 “디지털 경제”가 부상하여 국제무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모든 회원국이 보고르 목표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에 대한 APEC 작업방향을 제시하여 개방된 자유무역투자를 향한 진보를 가속화해야 한다.



FTAAP을 향한 가능진로 모색

2009년 정상회의에서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FTAAP)를 실현시키기 위한 가능진로를 모색하기로 합의하고 관련작업에 착수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보다 확실한 비전을 갖고 단계를 밝아가기로 하였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차세대(next generation)” 무역투자이슈를 다루어 APEC이 FTAAP의 인큐베이터로서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을 확신하였다. 또한 ASEAN+3, ASEAN+6, TPP(Trans Pacific Partnership)과 같은 지역협정의 개발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 FTAAP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원산지규정, 공급망연계와 우수공인업체(AEO) 프로그램을 포함한 무역원활화, 환경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분야별 이니셔티브를 지속 및 추가개발하여 FTAAP을 추구할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경제통합과제를 추진하고 회원국의 개발수준에 따른 효과적인 경제기술협력활동을 제고하여 상품과 서비스,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역동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방법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다.



성장전략

APEC 회원국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공동노력(collective efforts)이 아·태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동력이었다. 국경 간 조치(across-border activities)가 빠르게 확대되어 아·태지역 경제의 고용과 안정성,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회원국 간 또는 회원국 내에 불균형과 격차(disparity)를 드러낸 경우도 몇몇 있었다. 이렇게 공동노력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좀 더 체계적인 성장패턴을 정립할 필요성에 따라 개발을 지속하되, 빈곤을 줄이는 좀 더 균형 있고 지속적인 지역 및 세계성장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또한 성장을 저해하는 기후변화 및 전염병, 테러, 식량안보와 같은 문제는 공동노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에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으로서 보다 균형 있게(balanced), 포용적으로(inclusive), 지속적이며(sustainable), 혁신적이고(innovative) 안정적인(secure) 성장전략을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 정상회의에서 신성장패러다임(New Growth Paradigm)에 대한 비전 틀을 마련하여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전략을 형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2010년에는 G20 프레임워크와 맥을 같이하여 보다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세계경제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한 번 약속하였다. 경제성장을 위한 다섯 가지 주요요소(attributes)에

입각하여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Action Plan)을 정립하였다. 회원국별 우선과제에 따라 주요과제(critical work)를 조정하게 하였다. 먼저 회원국 간 및 회원국 내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고 인프라개발을 통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균형성장(Balanced Growth)을 이루어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둘째, 기업가정신 및 인력자본을 개발하고, 여성이나 취약계층의 기회를 창출하며, 금융서비스에 대해 보다 포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안전망 증진과 같은 사회복지 및 회복력(resilience)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이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을 도모한다. 셋째,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고 저탄소정책을 펼쳐 에너지안보를 높이며, 환경상품 및 서비스(EGS)와 이 분야의 접근을 높이고 녹색직업교육을 추진하며,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업 및 천연자원에 대한 보다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지속성장(Sustainable Growth)을 추구한다. 넷째, 앞에서 언급한 성장을 좀 더 원활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고 숙련된 전문인력을 개발하여 디지털번영(Digital Prosperity)을 도모하고 혁신정책에 대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증진하고 지식재산(IP)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혁신과 창조를 도모하여 혁신성장(Innovative Growth)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위협요소인 테러 및 자연재해, 질병, 식량안보에 대한 공동대책을 세우고,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증진하여 안정성장(Secure Growth)을 도모한다. 이러한 주요요소별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인적자원 및 기업가정신 개발, 녹색성장, 지식기반경제, 인간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작업계획을 세워 APEC 성장전략을 실행하고, 점차적이며 지속적으로 목표 및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다년간조치(Multi-year Follow-up)를 단행하기로 합의하였다.



A P E C



22th APEC Ministerial Meeting 제22차 APEC 합동각료회의 (2010. 11. 10~11, 일본 요코하마)

2010년 제22차 APEC 합동각료회의가 11월 10~11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22차 APEC 합동각료회의에서는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통합을 강조하였다. 먼저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보고서결과를 논의하고 보고서와 “APEC 2010 개별행동계획”을 승인하였다.

1. 역내경제통합

역내경제통합(RE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에 관하여는,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를 위한 분야별 이니셔티브(sectoral initiatives)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for the Asia-Pacific) 실현을 위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과를 보고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역내경제통합을 위한 회원국의 협상능력 배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명하기 위한 survey를 실시한 것을 조명하였고, APEC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자발적인 자금지원을 환영하였다. 투자에 대한 APEC 전략형성(formation of the APEC Strategy for Investment)과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APEC 서비스행동계획(APEC Services Action Plan)을 승인하였다. 또한 무역관련 표준 및 기술규제에 관한 APEC 규제협력메커니즘(APEC Regulatory Cooperation Advancement mechanism on Trade-Related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의 확립을 환영하고, 2011년 용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두 번째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 II)의 마지막평가를 2011년에 이행할 것을 기대하며, 공급망연계(Supply-Chain Connectivity)와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mes), 무역회복(Trade Recovery), 개인의 이동원활(Facilitating Movement of Persons), 원산지규정 간소화(Simplifying Rules of Origin Documentation and Procedures), 무역원활화를 위한 투명성증진(Improving Transparency

to Facilitate Trade), 세관절차에 대한 협력(Cooperation among Customs Administrations)관련 후속활동을 환영하였다.

그 외에도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다섯 가지 우선과제에 대한 단계별 프로그램 추진(2011년까지 5% 개선과 2015년까지 25% 개선을 목표로 하는 2단계 프로그램 발동)과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해 APEC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이니셔티브(APEC Anti-Counterfeiting and Piracy Initiative) 실행을 공지하였다. 디지털경제를 위해서는 ICT활용 추가작업을 지시하였고, 디지털번영체크리스트 survey 결과와 향후작업에 대한 지침이 될 Digital Prosperity Mapping Exercise를 환영하였다. 국경 간 privacy 보호강화 운영 시작을 공지하였고, 국경 간 privacy 규범(CBPRs)을 다룬 주요문서를 승인하였다. 환경상품 및 서비스(EGS)에 관해서는 2010년에 실행된 EGS 작업프로그램의 성과를 주목하면서 EGS의 활용과 확산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하였다. APEC 회원국의 EGS 시장개발에 대한 사례연구 완료를 알리면서 2011년 추가 사례연구 착수를 지시하였다.

2. APEC 성장전략(Growth Strategy)

2009년 정상회의에서 결정되어 수차례의 부문별 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를 거쳐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APEC 성장전략을 형성하게 된 것을 치하하며, 1) 회원국 간 및 회원국 내 균형성장, 2) 모든 이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경제성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포용성장, 3) 저탄소녹색경제로의 전환과 환경보호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상응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4) ICT상품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혁신성장, 5) 경제활동에 필요한 안정적인 환경과 안보를 보장하는 안정성장을 주요요소로 하는 성장전략을 실행할 것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행동계획을 세우고 통합작업요소들(구조개혁, 인적자본과 기업가정신개발, 녹색성장, 지식기반경제, 인간안보)과 더불어 진보상황을 제고하는 후속메커니즘

(follow-up mechanism)도 개발할 것을 논의하였다. 특히 구조개혁을 위한 APEC 신전략(APEC New Strategy for Structural Reform)의 이행은 APEC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고,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중점을 둔 2010 APEC 경제정책보고서를 승인하였다.

인간안보(Human Security) 면에서는 먼저 식량안보(Food Security)에 관한 5개년 APEC 행동계획이 승인되었고 식품안전협력포럼(Food Safety Cooperation Forum)과 파트너십훈련기관 네트워크(Partnership Training Institute Network)를 통한 국제기준과 모범사례 활용도를 증진시키는 활동에 대한 로드맵을 개발한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자연재해나 질병에 민관협력 및 공동체회복력을 증진시키는 비상사태대비 대책위원회(Task Force)의 실질적인 위기관리능력 증진과 연구메커니즘 개발을 추진할 것을 확인하고 반테러대책위원회의 위임을 연장하고, 반부패 및 투명성에 대한 전문가대책위원회의 APEC 하부구조와 기업체들과의 협력을 환영하였다. 더불어 UN반부패협약과 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도 비준하였다. 보건자금조달 및 인적자원개발, 정보기술향상을 통한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처하는 보건작업단의 노력을 조명하며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강조하였다.

3. 분야별 이니셔티브 및 경제기술협력 (ECOTECH) 증진

에너지안보에서는 2010년 6월 “에너지안보로의 저탄소방안에 대한 후쿠이선언(Fukui Declaration on Low Carbon Paths to Energy Security)”이 이루어졌고, 일본의 “APEC 저탄소모범마을 프로젝트(APEC Low-Carbon Model Town Project)”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여성의 권리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제8차 성별중심네트워크회의(Gender Focal Point Network Meeting)와 제15차 여성지도자네트워크회의, 제1차 여성기업가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활발

한 움직임이 이루어졌는데 각료들은 각 회의에서 나온 제안들을 환영하였고, 2011년 APEC 내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관한 고위급대화(high-level policy dialogue)를 처음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반겼다. 이러한 노력들은 APEC 성장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 주요요소이므로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이 계속될 것이다. 그 외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APEC 기술개발진흥 프로젝트와 행동계획, 환경을 생각하면서 직업을 창출하는 APEC 성장동력으로서의 관광을 위한 “나라선언(Nara Declaration)”, APEC 중소기업정책 행동패키지인 “기후 이니셔티브(Gifu Initiative)”, “해양생물다양성보존과 생태계관리를 위한 APEC 연구훈련센터(APEC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for Marine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Ecosystem management)” 등이 설립 및 추진 중이다. 또한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이자 사회경제적 활동을 향상시키는 ICT분야는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 및 서비스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각료들이 결의를 다졌다.

“ECOTECH에 관한 2010 고위급관리회의 보고서(2010 SOM Report on ECOTECH)”가 승인되었고, 각료들은 APEC의 중기 ECOTECH 우선과제 규명과 모든 APEC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운영기준(funding criteria) 형성을 환영하였다. 마닐라프레임워크에 대한 결의를 다시 다지며, ECOTECH 활동이 개도국의 2020년 보고르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2020년까지 모든 종류의 산림에 대해 최소 2천만 헥타르까지 산림을 늘리기로 한 “시드니 선언”에 대한 작업을 추진할 것과 지역 간 혁신격차를 해소하는 “APEC 디지털기회센터 프로젝트(ADOC 2.0: APEC Digital Opportunity Centre Project)”의 두 번째 단계에 이루어진 기여를 확인하였다.

4. APEC 연계 및 역할 강화

ABAC 및 다른 이해관계자(stakeholders)와의 민

관(public-private)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APEC 산업별 대화(industry dialogues)의 실질적이고 긴급한 사안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2010-2012년 화학전략 프레임워크(Chemical Strategic Framework for 2010-2012)”를 승인하였고 생명과학혁신포럼이 성장을 주도하는 생명과학 투자환경을 향상시키는 등의 기여를 주목하였다. 또한 공정성을 증진하는 “ABAC 경쟁정책과 법에 관한 그룹 공동대화(ABAC-Competition Policy and Law Group Joint Dialogue)”를 환영하였다.

2010년 이후의 APEC 활동에 대한 보다 성공적인 지원을 지속시키기 위해 APEC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을 인지하고 보다 확장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의 IT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싱가포르의 지원과 사무국의 제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과 APEC의 기술지원과 훈련시설(TATF: 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Facility)에 대한 기여를 환영하였다. 보고르 목표와 공급망연계, StatsAPEC 런칭과 같은 주요이니셔티브를 지원해온 정책지원단(PSU)과의 결속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 연간보고서를 주목하며, 2011 APEC 예산과 회원국기여금 내용을 승인하였다.

Concluding Senior Officials' Meetings

최종고위관리회의

(2010. 11. 7~8, 일본 요코하마)

2010년 최종고위관리회의는 11월 7~8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었다. 고위관리들은 2009년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과 우선과제의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관련행동사항을 승인하였다. 크게 다자무역주의체제지원과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로의 가능진로 모색을 포함한 역내경제통합 도모, 성장전략과 새로운 구조개혁 아젠다, 인간안보, APEC 개혁이라는 주제에 집중하여 관련사항을 검토하였다.

1.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최종마무리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동각료회의에 제출할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평가 이후 과제에 대한 중요성 또한 언급하였다.

2.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로의 가능진로 모색을 포함한 역내경제통합 도모

FTAAP로의 가능진로 모색에 대한 초안을 꼼꼼히 논의하여 그 초안을 합동각료회의의 승인을 위해 제출하였다. 투자, 서비스, 무역원활화, 환경상품 및 서비스, 지식재산과 같은 역내경제통합 주요분야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인정하면서 아·태지역의 무역거래의 불확실성 및 비용,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공급망연계 행동계획을 승인하였다.

3. 성장전략과 새로운 구조개혁 아젠다

합동각료회의에 제출할 APEC 정상 성장전략 초안을 논의하였고, 이와 더불어 “구조개혁을 위한 APEC 신전략(ANSSR: APEC New Strategy for Structural Reform)”을 지원하기 위한 “APEC 가능행동리스트(Illustrative List of Possible APEC Actions)”를 승인하였다.

4. 인류안보

식품안전 각료회의의 결과와 식량문제에 대한 새로운 의장소그룹협의체(FotC; Friends of the Chair)모임을 환영하였다. 인류안보와 같은 APEC 우선과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 경제기술협력(ECOTECH)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3차 APEC 해양관련 각료회의의 결과 해양자원 및 어업, 양식업제품이 식량안보에 지대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주목하였다.

5. APEC 개혁

PSU 임기연장을 논의하였고 합동각료회의에서 각료들에게 논의결과를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 경

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SOM Steering Committee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산하 대책반(task forces)과 작업단(working groups)을 간소화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였고, 책무성과 소통을 향상시키는 작업과 ECOTECH 활동가이드 프레임워크 이행완료와 같은 APEC ECOTECH 활동을 강화하는 작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였다.



APEC SOM I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제1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

(2011. 2. 27~3. 12, 미국 워싱턴 D.C)

연락처 : 박혜진 서기관 /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 02-2100-7657

APEC SOM II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

(2011. 5. 7~21, 미국 몬타나 빅스카이)

연락처 : 박혜진 서기관 /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 02-2100-7657

APEC SOM III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

(2011. 9. 11~26,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락처 : 박혜진 서기관 /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 02-2100-7657

APEC Study Centre Consortium
Conference

APEC 연구센터 컨퍼런스

(2011. 9. 22~23,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락처 : 임경수 연구원 /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Tel : 02-3460-1031

Concluding Senior Officials' Meetings

최종고위관리회의

(2011. 11. 8~9, 미국 호놀룰루)

연락처 : 박혜진 서기관 /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 02-2100-7657

23rd APEC Ministerial Meetings

제23차 APEC 합동각료회의

(2011. 11. 11, 미국 호놀룰루)

연락처 : 박혜진 서기관 /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 02-2100-7657

19th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제19차 APEC 정상회의

(2011. 11. 12~13, 미국 호놀룰루)

연락처 : 박혜진 서기관 /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 02-2100-7657



PECC

최근행사

2010년도 PECC 상임위원회 및 관련회의 (2010. 10. 18~20, 22, 일본 도쿄)

2010년도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상임위원회 및 관련회의가 10월 18~20, 22일 일본 도쿄에서 제19차 PECC총회와 연이어 개최되었다.

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이 원안대로 통과되고, 재무보고 및 2011년 예산(안)보고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그간 높은 평가를 받아온 아·태지역 연례현황보고서(State of the Region)의 각국 경제전망은 중단하며 각국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Survey)의 횟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는 진행될 것이며 APEC 정상회의의 시기에 맞추어 Press Release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다. 일본 JANCPEC 주도에 이루어진 Social Resilience Project는 3월 일본 도쿄에서 국제워크숍이 개최되었고, 제19차 PECC 총회에서 그 결과물이 보고될 것이다.

또한 향후 PECC 프로젝트로서 2009년 상임위원회에서 양수길 KOPEC 회장이 제안한 녹색성장

프로젝트로서 아·태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in the Asia Pacific)에 관한 연구를 2011년 5월경부터 워크숍과 컨퍼런스를 통해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대만의 David S. Hong박사가 주도하여 2010년 11월~2011년 12월 아태·지역의 구조적 실업에 관한 중장기적인 점검(Examining the Mid-and Long Term Structural Unemployment in Asia-Pacific)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 금융정책 프로젝트(Monetary Policy Regime)를 2011년 10월경부터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수길 KOPEC 회장은 사퇴의사를 밝혔으며, 사퇴 후에도 PECC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을 요청받았다. 또한 KOPEC은 PECC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제19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 (2010. 10. 20~22, 일본 도쿄)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제19차 총회가 10월

20~22일 일본 도쿄에서 “PECC 30주년 기념: APEC의 새로운 비전과 지역경제협력에 대해 나아갈 길 (PECC at 30: New Vision for APEC and Toward Further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본 총회는 총 6개의 전체세션과 4개의 동시세션을 통해서 경제 회복 및 성장과 새로운 국제질서에 있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더 나아가 사회환경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본 총회에는 주요 연사로 가와이 마사히로(Masahiro Kawai)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장(ADB), 양이용(Yang Yiyong) 중국 국가개발개혁 위원회장(NDRC), 요이치 오타베(Yoichi Otabe) 일본 외교부 차관, 천양춘(Liang-Chun Chen) 국가재난방지과학기술센터장 이시와타리 미키오(Mikio Ishiwatari)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부회장, 오카자키 쿠미코(Kumiko Okazaki) 일본 은행 경제학자, 마에하라 세이지(Seiji Maehara) 일본 외교부 장관, 박영철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KOPEC의 양수길 회장은 본 총회의 제4세션 “기후변화(Climate Change)” 세션의 발표자로 참석하였으며, 박영철 고려대학교 석좌교수가 제6세션인 “G20시대와 APEC을 위한 세계적, 지역적 협력의 미래(The Future of Global and Regional Cooperation: Looking toward the G20 and APEC)” 세션의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본 총회에는 양수길 KOPEC 회장, 박영철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를 비롯 총 9명이 KOPEC 대표로서 참여하였다.

아·태지역연례현황보고서(SOTR) Press Release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는 APEC 정상회의 및 관련회의가 개최된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11월 11일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정치현황을 평가하는 아·태지역 연례현황보고서(SOTR Report)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아·태지역에 경기회복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G20와 APEC정상회의에서 현재 지속불가능한 세계적 흐름의 패턴에 관해 논의하고 통화정책과 무역부문의 심각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개월 동안 아·태지역의 경제환경과 회복의 양상을 살펴보면, 세계적인 저축투자의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이 지적되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역적자국과 흑자국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며 국제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APEC은 구조개혁에 있어 지역적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세계균형을 잡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APEC국가들이 힘을 합쳐 노력해나가는 것이 새로운 성장을 위한 엔진을 가동시키는 길이라 할 수 있겠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다수가 지난해에 비해 내년의 경제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또한 2010년도 APEC 정상회의가 토의해야 할 의제로 지역의 위기 후 전략을 1순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유무역지대, 그 다음으로는 WTO 도하개발 아젠다를 선택하였다.

금번 설문의 결과는 균형 잡힌 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강화된 자금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역이슈에 있어서 금번 설문에 참여한 오피니언 리더들은 국가 간 지적재산권과 표준 및 규제에 관한 이슈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밝혔다.

PECC의 아·태경제통합지수로 살펴볼 때, 아·태 경제통합은 꾸준히 진전된 반면, 일인당 국내총생산의 증가, 평균수명의 증가, 교육지출의 증가 등과 같은 주요발달지표들의 분산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간 및 국가 내에서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JANCPEC National Meeting
(2011. 3월 중, 일본 도쿄)

K O P E C



최근행사

KOPEC G20 Seoul Roundtable

(2010. 10. 4,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10월 4일 한국추진 PECC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Rebalancing Asian Growth: Challenges of Structural Reform and the Role of Exchange-Rate Policies”라는 주제로 G20 서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호주의 피터 드라이스데일(Peter Drysdale) 호주 국립대학 교수, 앤드류 엘렉(Andrew Elek) 호주 국립대학 교수, 쉬로 암스트롱(Shiro Armstrong) 호주 국립대학 박사, 캐나다의 웬디 돕슨(Wendy Dobson) 토론토대학 교수, 중국의 장 리칭(Zhang Liqing) 베이징 중앙재경대학 교수, 인도네시아대학의 앤와르 나수티온(Anwar Nasution) 교수, 마리아모니카(Maria Monica Wihardja) CSIS 박사가 초청되었다. 국내 초청연사로는 권해룡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장, 백범흠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장,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의 목적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프로세스에 대한 아시아의 관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함이었으며, G20 회의에서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아·태지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자 함이었다.

권해룡 G20 준비위원회 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G20이 더욱 정당성을 갖고 세계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G20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경제성장 또한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금융안전망에 관해서 한국은 글로벌금융 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G8과 G20 간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G20이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G8이 혼자 수행하기에는 벅찬 글로벌경제관련 주요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회의로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참석자들은 G20 이슈를 넓히는 것에 있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슈는 바로 개발과 기후변화문제라고 논의하였다. 또한 환율문제가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 심각하게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의

문을 가졌다.

앤드류 엘렉(Andrew Elek) 교수는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G20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터 드라이스데일(Peter Drysdale) 교수는 G20 내 아시아국가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은 아시아 내에서 중요한 경제체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동아시아의 계속되는 경제성장과 역내통합에의 노력은 각국의 기관과 규제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이 개혁문제는 아시아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이며 G20 프로세스를 통해 국제 아젠다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아시아 환율정책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지역적 차원에서 아시아의 위기를 들여다본다면 역내저축의 중요성과 지역보다는 세계금융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해준 계기가 되었던 만큼 로컬통화채권 시장을 개발하고 역내비상금융 매커니즘을 확충하여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같이 중요한 역내협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의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각 국가의 국내적인 요인 및 국제금융시장의 낮은 발전수준, 사회안전망의 부족, 인구변화, 세계생산량 및 투자량의 구조적 변화, IMS의 흐름 등이 이에 기여하고 있다. G20 회의에서 정책입안자들은 수요관리를 통한 글로벌 불균형해소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할 것임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양수길 KOPEC 회장은 G20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관련된 경제정책 및 향후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금번 회의의 핵심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서울 G20 준비위원회 측에 전달할 것임을 밝혔다.

KOPEC 아·태전략포럼 제4차 회의 (2010. 10. 12,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찰스 모리슨(Charles Morrison) PECC 회장을 연사로 초청하여 “G20 시대에서 역내협력과 제도적 변화”를 주제로 2010년도 제4차 아·태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APEC 역내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춰, G20 시대 속에서 APEC의 역내협력의 필요성 강조 및 역내의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APEC 국가들의 확실히 드러난 문제로는 아시아의 인구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 자원부족과 환경보존에 대한 전 세계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보건에 대한 문제 등 네 가지가 꼽혔다. 반면, 불확실한 APEC의 문제로는 아시아지역도 이제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발전방향을 가져야 하는지의 여부, 역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진화에의 대처방안, 국제관계 문제, 글로벌 이슈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의 APEC의 역할을 들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아·태지역에는 아직까지 몇몇 지정학적인 문제가 남아있는데, 태평양-대서양 간의 인종 및 민족주의, 한반도의 갈등문제, 권력의 이동문제, alliance와 다자간기구를 포함한 역내구조의 문제 등이 그것임을 찰스 모리슨 회장은 설명하였다.

아·태지역의 변화하는 트렌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먼저 변화하는 트렌드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전문화된 연구 및 교육의 필요, 둘째 중요한 이슈나 시사점에 대해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 셋째 필수제도 및 기관들에 대한 개혁 및 감시의 필요, 넷째 리더십 및 리더십 스킬에 대한 신중한 요구 등을 들 수 있다고 토론하였다.

참석자들은 중국의 부상 및 변화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문제 등에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또한 역내회원국들은 모두 다른 회원국들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예측함으로써 상호간의 갈등을

줄이고 협력해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역내통합 및 협력을 강화하여야 함을 논의하였다.

KOPEC 제25차 총회

(2010. 11. 22, 서면심의)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제25차 총회를 지난 11월 22일 개최하였다.

제25차 총회는 총원 54명 중 결의동의 위원수 36명으로 성원되어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인선임안에 36명 동의하였고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해산 및 청산관련 세부절차를 이어 진행하기로 하였다.



KOPEC 제26차 총회

(2011. 1월 중, 서울)

KOPEC 제27차 총회

(2010. 3월 중, 서울)

회의 관련 문의사항이나 자료는
KOPEC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OPEC 사무국
Tel: 02-3460-1240 Fax: 02-3460-1244
E-mail: kopec@kiep.go.kr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10
- Towards a More Resilient Society: Lessons from Economic Crises, 2010
-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ailand, Narongchai Akrasanee, 2010
- Public Private Partnerships Forum Report, Australian APEC Study Centre, 2010
- Workshop on Measures to Promote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Public Private Partnership, Australian APEC Study Centre, 2010
- The Globalisation of Education: The Next Wave, PECC & APRU, 2009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Market Volatility and the Food System, Pacific Food System Outlook Project, 2009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9
- Competition among Financial Centres in Asia-Pacific: Prospects, Benefits, Risks and Policy Challenges, KOPEC & ISEAS, 2009
- Competition among Financial Centres in Asia-Pacific: Prospects, Benefits, Risks and Policy Challenges: Synthesis Report, KOPEC, 2009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8
- Labour Mo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Dynamics, Issues and a New APEC Agenda, KOPEC & ISEAS, 2008
- Demographic Change and International Labor Mo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 Implications for Business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ynthesis Report, KOPEC, 2008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7
- An APEC Trade Agenda: The Political Economy of a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PECC & ISEAS, 2007
- Guidelines for Effective Public Private Partnerships, 2007
- The Policy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SMEs, 2007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6
- The Evolution of PECC: The First 25 Years, 2005
- Towards a Pacific Community: Renewing the Commitment (proceedings of PECCXVI), 2005

- Finance

- Impediments to Cross-Border Investment in Asian Bonds, PECC & ISEAS, 2005

- Trade

- Study on the Mutually Supportive Advancement of APEC's Trade Facilitation and Secure Trade Goals post September 11, 2005
- Papers on World Trade and Investment in Memory of Bijit Bora, 2010

- Outlooks

- Pacific Economic Outlook: External Adjustments under Increasing Integration in the Pacific Region, 2009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8-2009: Climate Change and the Food System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7-2008: Linkages to growing urban markets spur rural development, 2007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5-2006: A Revolution in Food Retailing, 2005
- Pacific Economic Outlook 2005-2006, 2005

PECC, KOPEC 회의 관련 자료 및 발간물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PEC 사무국 (곽소영 연구원) Tel: 02.3460.1240 Fax: 02.3460.1244 E-mail: kopec@kiep.go.kr